

강의평가제에 관한 사례연구

-학생대상 설문조사에 근거한 교수 강의평가제 중심으로-

- A case study & suggestion
for Lecture Evaluation System of University -

유 지 철 *

Ryu Ji Chul

김 용 범 **

Kim Yeong Bum

서 장 훈 ***

Seo Jang Hoon

Abstract

Lecture Evaluation system is an only way, so far, to evaluate the quality of lectures in our university and yet has several problems. This system does not have any effects on professors; however, it is rather used to threaten assistant professors and/or part-time/full-time lecturers. As a result, students are still dissatisfied with the unchanging lectures of professors.

Generally speaking, We should consider new ideas to introduce a head teacher system or improve the lecture evaluation system to open doors wider for teachers, professors do their best to expand students' understanding by practicing the Lecture Evaluation System. In fact, it is hard to keep the objectiveness that the professors estimate the quality of professors. That is why this check list should be restricted only as a guideline among the system. After all, it is expected to bring better educational circumstances when the system functions properly to provide professors to research more.

key word : Lecture Evaluation system, educational circumstances

* 충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충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명지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부

1. 서론

1.1 강의평가제의 의미와 논의사항

WTO 교육개방 및 교육시장 개방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육문화이며, 시대의 흐름과 주체의 변화에 따라 앞서가려는 경쟁과 노력을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강의평가제일 것이다. 강의평가제는 지난 95년부터 각 대학마다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제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던 강의내용과 방법, 강의준비와 태도, 과목의 이해도와 과제물, 교육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강의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강의의 폐쇄성을 깨고 보다 나은 강의 질 향상과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둔 평가제도이다.

그러나 교수강의평가는 수업 이외의 측면도 평가 대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평가보다 넓게 쓰일 수 있으며, 강의는 수업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강의평가는 수업평가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수 강의 평가제 실시와 관련된 제 문제를 논의하고, 대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의평가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강의평가제의 실시 배경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수 강의 평가제 실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50년대에 들어와 사회, 정치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개혁과 저항운동이 대학의 학내 문제로 확산되어 대학행정에 대한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수의 강의 평가제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내에서의 교수의 기능과 역할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수의 관점에서 교수의 주요 기능은 새로운 학문 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고, 학생의 관점에서 교수의 기능은 단순히 전문적 지식 전달이나 학생의 전인교육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은 교수의 기능이 연구와 논문 발표에 집중되고 강의를 등한히 여겨,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 강의 평가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2년 이성진 외 2인의 [대학 수업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였는데 당시 상당히 많은 대학 교수들이 이 제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교수 강의 평가제를 도입한 대학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두 곳인데 이 대학들은 개교와 거의 동시에 강의 평가제를 실시하여 이제 완전히 정착 단계로 들어섰다고 한다.

이들 대학을 제외하면 1989학년도부터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교수 강의 평가제의 실

시가 대학사회의 큰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초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판도 많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각 대학이 잇달아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대학 및 우리나라 대학들 사이에서 허점 많은 강의평가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제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1.3 강의평가제의 평가 내용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교수강의평가제의 평가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강의 취지에 대한 적합성과 수준
- ② 강의분량과 성실성 여부
- ③ 과제물 및 시험의 적절성
- ④ 수강자의 참여와 태도
- ⑤ 학생 자신의 성실도와 다음 수강자에 대한 조언
- ⑥ 교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등 주·객관식으로 나누어 10~30문항으로 구성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교수의 강의 평가 내용을 단순히 강의능력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도덕성, 인격, 자질과 같은 교수의 인격적 측면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격을 포함하는 경우 인격과 자질을 수량적 척도로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교수들로부터 신성한 인격의 모독행위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강의내용에 국한한다 할 때, 우선 강의능력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평가 내용 항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각 학문분야별로 다양화하느냐 하는 점, 그리고 평가내용 항목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평가 결과의 해석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합일(合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2. 본 론

2.1 교수 강의 평가제의 방법

교수 강의 평가제 실시방법은 계량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나 평가자가 직접 강의시간에 참여하여 교수의 강의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 일일이 기록 및 평가하는 질적 방법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설문지를 제작하여 수강 학생들이 응답한 조사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계량적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 강의 능력평가는 "만족스럽다."고 반응한 학생수의 많고 적음, 즉 다수결 원리의 형태로 평가된다. 교수들의 '간간한 수업'과 '잔학점'을 기피하는 성향이 만연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대학 풍토에서 계량적 수치를 통한 교수 강의 능력의 평가는 타당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2.2 교수 강의 평가제 실시의 주요쟁점

2.2.1 찬성 이유

- 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수강과목 선택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교수의 연구풍토 조성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극이 된다.
- 교수 자신이 모르는 수업 방식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강의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 건전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대학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2.2.2 반대 이유

- 스승과 제자간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한 우리의 전통적인 사제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평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 학생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교수의 강의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
- 과거 교권탄압의 수단이었던 교수 재임용제도와 같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 교수, 학생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 교수 자신이 강의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 자칫하면 너무 학생들에게 영합할 위험이 크다.
- 수업의 독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설령 평가를 받는다 해도 강의 자세나 강의 기법 등 교육방법 차원에서 국한해야지 강의 내용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면학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고 교수, 학생간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 제도의 실시는 시기상조이다. 강의 평가제가 일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특정 교수에 대한 배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2]

2.3 강의평가 선행연구

2.3.1 강의평가의 연구역사

20세기 초반에도 몇 편의 강의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지만(Marsh, 1987; Tagomory & Bishop, 1995), 1920년대 중반부터 Remmers(1928, 1930, Wachtel, 1988에서 재인용)의 선도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중심의 북미 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의평가가 탐구되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규모 큰 주립대학교에서는 관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평가에 대한 타당성확보를 위하여 방법론적 관심과 특정의 배경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Wachtel, 1998).

그러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수평가를 금기시하는 학문풍토에 영향을 받아 최근까지도 대학 자치기구, 혹은 개별 교수자의 비공식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한 학문적 검사와 질적 평가를 통한 교수자의 자기개발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강의평가를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강의평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송미섭·지은림, 1994).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에서의 강의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이론적 연구(장언효, 1993)와 강의평가를 위한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최연옥, 1995), 그리고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의평가 설문지에서 사용된 문항분석에 관한 연구(송미섭·지은림, 1994)등이 수행되었다.[3]

2.3.2 강의평가의 타당도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수업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평가하는 학생의 연령 수준이 낮다거나 특정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태도 여부, 학생의 성적에 대한 기대감에 비례하는 평가 경향, 효과적인 수업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부족 등이 학생에 의한 교수활동 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1]

이처럼 강의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학생변인과 강의평가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종합 검토한 Kulik과 McKeach(1975)는 이들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학생변인 중 성별·학년·전공 등의 요인은 강의평가에 별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교수나 교과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싫어하는 교수나 과목은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 강의평가는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강의평가를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간과 경비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수업 개선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 행동 개선을 기대 할 수 있는 등 유용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15명 이상의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 평정의 일치도나 안전성, 일반화가능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 계수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수업평가의 실적인 주체로서 학생이 주는 정보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Aleamoni, 1981; Cohen, 1981; Abrami, 1982; Dunkin, 1986; 김종한, 1998; 손충기, 1998). 예를 들면 Abrami(1982)등은 '교육적 유희'에 관한 실험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연구들이 교수활동 평가의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변인들의 포괄성 부족과 20-30분 정도의 비디오 자료에 의한 인위적이고, 제한적인 평가 장면의 실제 교수활동 상황과의 거리감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학생에 의한 교수활동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Dunkin(1986)도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의 다양한 교수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평가 결과는 상당히 유의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8]

2.3.3 강의평가의 신뢰도

교육측정이론에 의하면 신뢰도는 내적합치도, 안전성 계수 그리고 일반화의 정도로 구명될 수 있다. 학생평가에서는 이 중에서 내적합치도 혹은 평정자간 일치도(동일한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항이 주어지는 평가)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규명은 Costin(1971)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상관계수가 0.80에서 0.90에 이르고 있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치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entra(1972)는 학생들의 평가당시의 기본이나 기타 타당하지 못한 요인들이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평가의 일관성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학생들에게 몇 주 간격으로 재평정을 시켰을 경우에도 학생들의 평정이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23개의 평가 항목으로 296명의 교수에 대하여 5주 간격으로 두 번 평가한 점수의 상관계수가 평균 0.70정도였으며 동일한 학생들에게 1년 뒤에 평가한 것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Hoffman(1978)은 수업특성 체크리스트(CLIC Check-list of Instructional Characteristic)의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대상은 Maryland 대학교의 대학생으로 교양교과의 115학급(4,089명), 언어교과의 28개 학급(456명), 수학개론 교과의 75학급(1,321명)이다. 분석결과 CLIC척도의 반분신뢰도는 교양교과에서는 높은 상관(0.79에서 0.90)을 보이고 있으나 말하기 교과와 수학개론교과는 '사려성'과 '비판적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낮은 상관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표집수가 적을 때 역시 신뢰도 계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생평가의 신뢰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적합치도, 안정성 및 일반화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학생평가의 타당도와 더불어 그 효용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Feldman(1997)은 교수 강의에 대한 학생평가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각의 평가 절차는 한 반의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평가 문항간 내적 합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평가의 절차가 다르더라도 평가결과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례였음을 밝히고 있다. 평가하는 학생들의 상호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급간의 평균성적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평균치의 차의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9]

2.3.4 강의평가의 유용성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자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는 일반적으로 연구뿐 아니라 수업을 개선하고, 교원 인사 등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학생평가가 수업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가 관심이 높다. 강의 평가의 결과를 교수들에게 송환할 경우 이것이 강의의 질적 향상 및 개선에 이바지하려면, 교수의 강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화가 교수효율성을 나타내는 준거에 비추어 타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의 유용성은 강의평가가 교수행동에 변화를 초래하는가하는 점과 이러한 변화가 교수효율성의 준거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Abrami등(1979)은 학생평가에 따른 피드백은 어떤 강의자에게 후속하는 학생평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나 그 효과는 믿을만한 것이 못되며, 효과의 크기도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의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Cohen(1980)은 수업 개선에 대한 학생평가의 피드백의 영향에 대한 17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강의평가가 대학에서의 교수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학기의 중간에 처음 실시한 학생평가에 의한 피드백으로 인해 학기말에 실시된 학생평가에 의한 분석에서 수업의 질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6]

이 연구에 대한 Cohen의 분석에 의하면, 강의평가의 송환은 비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확실히 의의있게 교수개선에 공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강의가 진행되는 학기 도중에 일종의 형성평가 성격을 띤 강의평가를 받은 교수들은 자신의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학생들이 지적인 사항을 가급적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 학기말에 다시 실시하는 강의평가에서는 보다 나은 평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수들에게 강의평가의 결과를 단순히 통보해 주는 것보다는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 자문을 곁들여 평가결과를 제공할 경우에 그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강의평가제에 대한 조사

각 대학들이 지난 95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강의평가제가 시행상 많은 문제가 드러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방식과 평가문항이 모두 단순해 강의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즉, 평가문항들이 모든 과목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과 및 과목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조사한 주요 4년제 대학들 중에서 2002년 기준으로 표본조사결과, 교수가 자기 전공에 맞는 강의 평가문을 선택하는 고려대와 경희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양·전공과목에 동일한 문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평가문항은 강의계획, 준비, 수준, 과제물 및 학습량 등에 관한 것이며, 대체로 10개내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문항들은 교양과 전공수업평가 할

때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총학생회의 견해는 “동일한 내용의 문항이 모든 과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다”며 “평가 뒤 나온 통계자료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강의평가제의 필요성은 같은 시각을 갖고 있으나, 공개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 UCLA 의 2000년도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40% 가량의 과목에 대해 특별한 흥미를 갖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의 학생들은 강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쉽게 따분해 하며, 공부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밖의 어렵거나 이론적인 과목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려버린다. “진지하게 학문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동료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어쨌든 수강해야 하니까” 강의실에 나타난다는 게 학생들의 반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고 학점을 받는 데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유로 강의평가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수를 매기고 있다

[표 1 전국 4제 대학 강의평가제 표본조사표]

학교명	평가방식	교수업적 평가반영	공개여부	비고
고려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학생평가문항 존재, 개별평가지
경북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실험실습, 실기적용
경성대	OMR	×	비공개	
경희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공동문항외에 자유문항 15개
명지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교양과 전공평가 개별관리
성균관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인센티브 적용
연세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인센티브 적용, 학과별 자율적 적용
이화여대	강의평가지(OnLine)	×(참고사항)	비공개	인센티브 적용
전남대	강의평가지(OnLine)	×(참고사항)	자료집발행	
중앙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인센티브 적용
한국의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서울대	강의평가지(OnLine)	×(참고사항)	비공개	인센티브 적용
인하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상주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서강대	강의평가지(OnLine)	○	비공개	

수량 평가에 바탕을 둔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학점에 대한 불만(C학점인 경우에도)을 품고, 강의 평가서 항목마다 0점을 줌으로써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라는 보고서를 보이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미국 대학이 경험해 왔던 교수강의 평가제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제도가 한국대학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제도를 강의의 질적 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의 평가제가 자칫 감성적으로 흐르기 쉬운 학생들에 의해 실시되고, 강의자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 차원에서 선택될 권리가 생긴다는 시각에서, 전통적 견해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 정서에 크게 위배되고, 예로부터 스승은 부모(父母)와 같은 존경의 대상이 될지언정, 상품적(商品的)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풍토는 단기적으로는 교육계(教育界)의 비능률을 개선하는 말초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차원에서 크게 위배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개혁적 시각에서는 시대는 더 이상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프로리즘 없이 실무실리 중심의 교육체제를 이루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대의 대학교육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에 평가를 통하여 서로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선위의 강의평제도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두 의견이 시각적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 견해는 교육 풍토 쇄신을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성급함보다는, 우리의 전통과 가치관, 교육 문화를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평가제도 도입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적용되고 있다.

4. 강의평가제 의식조사

강의평가제에 대한 평가 및 의식을 탐색적 조사로서 사례조사 및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의식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이다.

4.1 주제 : 우리나라 대학 강의평가제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4.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명이나 예측을 할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실체의 존재 유무 상태, 성질 등에 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모집단에 있어서 특성치들의 규모, 분포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지조사와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결측 조사지를 제외한 강의평가제 실응답 조사지만 평가하였다.

4.3 분석방법

어떤 주제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그 개인의 태도를 결정한

다고 보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여 응답자의 태도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측정도구로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통계 패키지는 SPSS 10.0 버전을 이용하여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래프는 엑셀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평가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여, 평균이 3.00이상이면 긍정적 반응으로 판단하였다.

4.4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 ① 조사기간 : 20일
- ② 조사대상 : 우리나라 4년제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 ③ 표본추출방법 :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 모집단의 특성을 모르고, 모집단의 편견 우려 감쇄 목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 ④ 표본수 : 267개

4.5 강의평가 의식조사 조사지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문항목중 강의평가제 실시여부, 학과, 성별, 학교, 학생구분(학부생, 대학원), 전공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빼고, 조사 목적과 주제에 관련된 문항만 언급하였다.

[표 2.5 강의평가제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설문항목	평가척도				
	1	2	3	4	5
	1 : 매우부정적이다. 2 : 부정적이다. 3 : 중간이다.(잘모르겠다.) 4 : 긍정적이다. 5 : 매우 긍정적이다.				
1. 선진식(미국식) 강의평가제의 도입	1	2	3	4	5
2. 우리나라 대학 강의평가제에 대한 만족도	1	2	3	4	5
3. 우리나라 고유의 대학강의평가제 개발	1	2	3	4	5
4. 대학평가제의 효율성 및 유용성	1	2	3	4	5
5. 강의평가내용에 대한 공개	1	2	3	4	5
6. 교수 강의평가의 교수업적평가 반영	1	2	3	4	5
7. 강의평가후 교수님들의 강의수준	1	2	3	4	5
8. 교수님들의 충실한 강의 준비성	1	2	3	4	5
9. 강의에 대한 교수 행동의 적절성	1	2	3	4	5
10. 과목별 강의평가지 차별화	1	2	3	4	5
11. 교수님들의 성적 평가 공정성	1	2	3	4	5
12. 학생이 스승을 평가할 수 있다는 강의평가제	1	2	3	4	5
13. 강의 점수 높은 교수를 훌륭한 강의자로, 낮은 교수를 덜 훌륭한 강의자로의 평가	1	2	3	4	5
14.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감	1	2	3	4	5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하여 유의성에 대한 검정결과도 역시 유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문응답 Items는 각 문항과 전체점수와 의 상관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위의 설문-Items는 강의평가제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설문문항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설문응답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설문 문항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평균척도점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평균이 3점 이상이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설문응답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 선행연구와 설문결과를 토대로 [표 1, 2, 3]에서 정리하였다.

[표 1 강의평가제 의식조사 설문응답 빈도 및 비율]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문7	문8	문9	문10	문11	문12	문13	문14
1	21 (8%)	36 (13%)	9 (3%)	27 (10%)	7 (3%)	21 (8%)	9 (3%)	13 (5%)	5 (2%)	3 (1%)	21 (8%)	15 (6%)	34 (13%)	5 (2%)
2	146 (55%)	96 (36%)	20 (7%)	116 (43%)	21 (8%)	38 (14%)	61 (23%)	124 (46%)	107 (40%)	27 (10%)	107 (40%)	45 (17%)	75 (28%)	117 (44%)
3	59 (22%)	64 (24%)	40 (15%)	54 (20%)	36 (13%)	48 (18%)	67 (25%)	73 (27%)	69 (26%)	53 (20%)	65 (24%)	75 (28%)	35 (13%)	79 (30%)
4	36 (13%)	64 (24%)	157 (59%)	48 (18%)	162 (61%)	107 (40%)	125 (47%)	52 (19%)	72 (27%)	155 (58%)	66 (25%)	94 (35%)	112 (42%)	48 (18%)
5	5 (2%)	7 (3%)	41 (15%)	22 (8%)	41 (15%)	53 (20%)	5 (2%)	5 (2%)	14 (5%)	29 (11%)	8 (3%)	38 (14%)	11 (4%)	18 (7%)
합계	267	267	267	267	267	267	267	267	267	267	267	267	267	267

[표 1]에서는 강의평가제에 대한 문항별 빈도와 응답비율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가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리커트 5점 척도 3 : 중간이다.(잘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전 문항에 있어서 최소 13%에서 최대 30%까지 나타나 강의평가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영향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설문 응답 카이제곱]

	Pearson 카이제곱(a)	자유도 (d.f)	점근 유의 확률 (양쪽검정)	유효케이스 (N)	결측 케이스 (n)
문항1	123.584	4	0.000	267	0
문항2	108.744	4	0.000	267	0
문항3	88.056	4	0.038	263	4
문항4	41.093	4	0.000	267	0
문항5	120.876	4	0.000	267	0
문항6	36.581	4	0.005	262	5
문항7	81.507	4	0.029	267	0
문항8	68.125	4	0.000	267	0
문항9	101.356	4	0.000	267	0
문항10	65.839	4	0.004	259	8
문항11	87.084	4	0.000	267	0
문항12	73.418	4	0.000	265	2
문항13	91.057	4	0.027	261	6
문항14	84.103	4	0.000	267	0

본 논문에서는 문항별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 : 문항별 응답 비율의 차이가 없다.(의식조사 응답비율의 차이가 없다.)

H_1 : 문항별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다.(의식조사 응답비율의 차이가 있다.)

[표 2]에 의하면 각각의 문항별 응답비율은 Pearson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상당히 크고 접근 유의 확률은 최대 0.038이므로 유의 수준 $\alpha=0.05$ 하에서 독립성의 가설인 H_0 는 기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항별 응답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응답 결과 분석 및 제언]

	분 석 내 용	평 점
문항 1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더 강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과 가치관, 교육 문화를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게 한다.	2.4682
문항 2	우리나라 대학 강의평가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2번 부정적이다 : 36%, 3번 잘 모르겠다 : 24%, 4번 긍정적이다 : 24%로 나타났다. 리커트 척도 평균 점수는 2.67로서 이 문항 역시 강의평가제에 대한 만족도가 부정적이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강의평가제의 본질적 기능과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일 수 있다.	2.6629
문항 3	문항 1이 척도 평균이 2.47로서 부정적 시각인 반면, 문항 3은 4번 긍정적이다 : 60%, 5번 매우 긍정적이다 : 15%, 척도 평균이 3.75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대학강의평가제 개발에 대한 강한기대감과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7528
문항 4	문항 3의 강의평가제 만족도가 약간의 부정적 시각과 연결되는 문항으로서, 대학평가제의 효율성 및 유용성을 묻는 문제에서 전체 응답자중 부정적 52%, 모르겠다 : 20%보임으로서 강의평가제의 운영에 관한 제고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2.7079
문항 5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전체 응답자중 76%가 긍정적 시각을 11%만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교수의 인격적 대우와 학생들의 감정에 치우쳐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편견에서 오는 평가의 오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3.7828
문항 6	교수 강의평가의 교수업적평가 반영 문제도, 전체 응답자중 6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척도 평균이 3.54로서 학생들의 반응은 교수업적평가 반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56
문항 7	강의평가후 교수님들의 강의수준 질적 향상을 묻는 문항이었는데, 응답자중 49%가 긍정적, 25%가 모르겠다라는 응답결과를 보였고, 척도 평균점수는 3.21로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3.2097
문항 8	교수님들의 충실한 강의 준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47%, 긍정적 시각이 21%, 모르겠다. 혹은 중간이다 27%, 척도 평균 2.68로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6779
문항 9	강의에 대한 교수 행동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는 부정적 시각 42%, 긍정적 시각 32%, 잘 모르겠다 26%, 척도 평균 2.94로서 부정적 시각 약간 우세로 나타났다. 강의 방식 및 내용 표현기술과 수강 학생의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9363
문항 10	과목별 강의평가지 차별화 사항은 응답자중 긍정적 71%, 부정적 12%, 잘 모르겠다 17%, 척도 점수 3.75로서 강의평가지 차별화는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와 고려대는 평가지 차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491
문항 11	교수님들의 성적 평가 공정성 문제는 의아스럽게도 48%의 부정적 반응과, 28%의 긍정적 반응, 24%의 모르겠다, 척도 평균 2.75라는 부정적 응답률이 나타났다. 강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교수님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원인을 밝혀 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2.7491
문항 12	학생이 스승을 평가할 수 있다는 강의평가제에 대해서 설문응답 학생들은 긍정적 49%, 부정적 23%, 모르겠다 28%, 척도 평균 3.36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의 우세는 현대의 대학생들의 사고방식이 한국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정통적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3.3558
문항 13	교수업적 평가의 당위성과 필요성 제고에 관한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시하는 문제였는데, 긍정적 46%, 부정적 41%, 모르겠다 13%, 척도평균 2.97로서 부정적 시각 약간 우세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교수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식이 나타났다.	2.9663
문항 14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감에 있어서는 부정적 45%, 긍정적 25%, 잘모르겠다 30%, 척도 점수 2.84로서 부정적 응답률이 강하게 나타났다.	2.8390

[표 3]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리커트 척도 응답 평균점수로서 분석하였다. 리커트 척도화 방법은 응답자에게 언어적 자극을 준 후 나타나는 반응으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척도화하는 것이다. 위 [표 3]에서는 5점 척도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평균점수 3점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3점 이상일 경우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위 5.1 신뢰성 분석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정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을 합리적인 정량적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6. 결론

현재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서 교수들의 업적평가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교수평가를 강화시키고 있고,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연구 업적뿐만 아니라, 강의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것은 교수의 실무성을 강조하는 대학내외의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전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들은 이미 강의 평가 자료를 교수 업적 및 인사고과에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영국도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공립이며 강의와 연구에 대한 정기 평가제를 통해 높은 학업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강의평가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교수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교수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이 일본 7시간, 대만 6시간, 독일과 프랑스 4-6시간 등이나 이들 나라는 아직 교수 강의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실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6시간으로 타교출강은 있을 수 없고 잡무도 없다. 과제물과 시험지의 채점은 할당된 유급조교가 처리하고 때로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까지도 해준다.

반면 우리 나라 교수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12.7시간으로 미국 보다 2배 이상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소속 학과에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초과강의시간은 어쩔 수 없고, 전공 이외의 강의까지 준비하다 보니 연구와 강의 그 어느 것도 충실을 기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 강의 평가제가 원활히 실시되려면 교수들의 강의시간에 대한 부담도 현저히 줄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의 유용성은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의평가에 대한 교수들의 고정관념이나 의식이 바뀌고 강의평가의 내용과 유용한 정보를 실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빈번한 휴강이나 성의 없이 강의에 임하는 일부 나태한 교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교수님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강의평가제에 대한 의식조사가 목적이며,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반응은 교수 강의평가제는 인정하되, 교수 평가 자체에는 부정적이다라는 예측 가능한 결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7. 참 고 문 헌

- [1] 원효현, 설현수(2000). “학생에 의한 교사 교수활동 평가도구의 양호도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 13 권 2 호, pp55-77.
- [2] 장언호(1993). “교수강의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논총』, 13(4), pp91-103.
- [3] 최연옥(1995). “대학 강의평가를 위한 문항개발”. 이화여자대학교.
- [4] 표시열(1993). “현대사회와 대학의 기능(상)”, 『대학교육』. 제 64호, pp74-78.
- [5] 허 형(1999). “학생에 의한 교수 강의평가척도 개발과 시행방안”.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 14호. pp23-45.
- [6] Abrami, P.C., Perry, R. P., and Leventhal, L.,(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eacher Ratings, and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4.
- [7] Braskamp, L. A., and Ory, J. C.,(1994), "Assessing Faculty Work: Enhancing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San Francisco : Jossey-Bass".
- [8] Dunkin.M.J.(1986), "Research 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In M.C.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in Teaching(3rd ed)", NewYork: Macmillan, 754-777.]
- [9] Feldman, K. A.(1998). "Effective collage teaching from the student's and faculty's view: Matched and mismatched prioriti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0, pp.583-645.
- [10] Fraenkel, J.R., & Wallen. N.E, (1990).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 McGraw-Hill, Inc.
- [11] Norland, E. (1993). Agricultural education 888. Printed and bound by: Grade A Notes, Inc.

저 자 소 개

유 지 철 : 동국대 산업공학과 석사, Adanson University 경영학박사, 현재 Windsor University 산업 및 시스템 연구원이며, 충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주요관심분야는 인간공학, e-Biz 분석, SCM, ERP이다.

김 용 범 : 명지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학사, 석사, 박사 취득, 현재 충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e-Biz 개발/설계 분석, 품질공학, TOC, 관광정보시스템.

서 장 훈 : 명지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학사, 석사 졸업,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e-Biz 분석 및 평가, SCM, 품질공학, Data-Mining, OR.